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807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화마루공소(공주중동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 2024년 9월 22일(나해)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 하리라.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am Totius) 2항
“성소 증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의 의무이다.”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백광현 요한 세례자
대산 주임

우리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신앙 선조를 둔 행복한 민족입니다. 선조의 신앙은 피의 증거로 꽃을 피웠고, 우리는 선조의 모범을 통하여 오늘의 삶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조가 해도 그 후손이 선조가

증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선조에게 누를 끼치게 되며, 세상으로부터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순교자의 성지를 찾아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자 합니다.

대전교구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지인 솔피를 비롯하여 27곳의 성지와 순례지가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순교자의 교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지에서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의 복음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이도 성별도 능력도 서로 다른 하느님 백성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셨고, 인류는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이 전해지는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순교자가 짊어진 십자가도 사랑의 십자가였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도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기적인 입신양명을 위한 고단한 삶의 짐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성인들을 기억하며 순교성지와 순례지를 경건하게 방문하고 선조의 삶을 본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성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없어서 보이는 것

해외 선교지 몽골, 그곳은

몽골에서 지내다 보면 점점 작은 것,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처음 몽골에서의 생활은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들이 많아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당 신자 수가 많지 않으니 미사 드리는 사람도 적고, 성당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도 그저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다고 탓하게 됩니다. 제대회, 사목회 등 협력자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일이 많고 바쁘다고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탓하기도 하고, 사회와 여러 조건을 탓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금방 바뀌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책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같이 적어 보이는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몽골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지 조금씩 더 보입니다.

가끔 성당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아이를 보면 예사롭게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성당에서 흔히 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한 인간의 간절한 몸부림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독대하고 있는 경이로운 그 순간을 바라보며 뒤에서 화살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작은 아이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느님의 응답에 감사드리며 찬미하게 됩니다. 숫자나 평가와 잣대에 가려서 잘 보지 못하던 한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을 보면서, 나는 성당에서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따스한 눈빛은 매 순간, 작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가득한 눈빛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시편 34, 6).



● 노상민 토마스 신부 몽골 선교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31. 1~2 km 정도는 걸어서 다녀봅니다

매년 9월 22일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차 없는 날” 캠페인은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9월 22일을 포함한 1주일을 친환경 교통주간으로 지정하여 저탄소 친환경 교통생활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이동수단으로 인한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불필요한 외출 하지 않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자전거 이용하기, 급출발 급감속 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원래 잘하던 사람들도 더 즐겁게 할 계기가 필요하구요. 만약 이미 잘하고 계시다면 주변 분을 초대해 보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소음과 교통체증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주변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걷기’에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초대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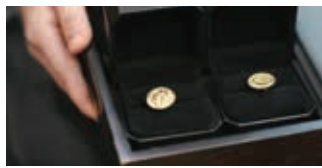


대전교구 청년성서 20주년과 제37회 만남의 잔치

대전교구 청년성서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성서 전담사목부는 8월 25일(주일), <대전교구 청년성서 20주년>과 <제37회 만남의 잔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2024 여름연수에 참여했던 연수생들과 봉사자들이 한데 모여 말씀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20주년 기념식에는 각종 전시와 체험 그리고 오랜 시간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성서가족들은 대철회관과 성남동성당에서 대전교구 청년성서 스무 해를 돌아보며, 저마다 열성을 다해 말씀이신 하느님과 함께했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성남동성당에서 봉헌된 20주년 감사미사에서 총대리 주교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신앙의 신비’에 대해 말씀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말씀의 봉사자가 되자고 권고하셨습니다. 미사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 파견과 더불어 평신도 성서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룹봉사를 33회 수행한 김호영 프란치스코(궁동), 연수봉사를 19회 수행한 최낙희 안나(문창동)와 오영주 안젤라(대흥동) 봉사자들이 주교님으로부터 모든 성서가족의 고마움을 담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을 기념하며, 그룹봉사와 연수봉사를 각각 10회(10+10) 이상한 봉사자들에게 대전교구 청년성서 로고가 새겨진 황금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앞서 감사장을 받은 세 봉사자와 더불어 채유리 이르미나(천안 성정동) 봉사자가 배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황금 배지를 받는 봉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청년성서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청년 소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입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고무시키며 함께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바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데 사랑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 김용우 베드로 신부 청년성서 전담

성지를 걷다_진산성지(2)

2.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4 한국성인 103위 시성식 중에서

윤지충과 권상연은 체포령이 내려지고, 진산 군수가 그들 대신 숙부를 감금하자,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진산 관아에 자수하였다. 관아에서 진산 군수의 회유와 협박을 용감히 이겨낸 그들은 전주 감영으로 이송되어 더욱 혹독한 형벌을 당했다. 죽음을 각오한 그들은 “천주님을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윤지충은 “만약에 제가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다면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증언하며 권상연과 함께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당시 전라감사 정민시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ㅣ 글·그림 진산성지



 교구알림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9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 : 9.24(화) 19:00
 • 곳 : 덕명동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2024 대전교구 청년 공모전
 • 부문(개인·단체) : 교구청년연합회로고(개인), 독후감(개인), 청년단체 우수사례(단체)
 • 기한 : 9.22(주일)까지
 • 접수 : 참가신청서(구글설문) 작성 후 메일로 공모작 제출(djyouth@daum.net), 자세한 내용 청소년국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청소년국 (042)626-6773

2024년도 하반기 사회교리학교
 • 때 : 9.29(주일)~12.1(주일) 매 주일 09:30
 • 곳 : 장재성당
 • 전신자 특강 형식으로 별도의 수강 신청 및 수강료 없음
 •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44)270-3072

 전담사목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제232차 주말ME
 • 때·곳 : 10.25(금)~27(주일), 해미 웨이크업센터
 • 대상 : 결혼 2년 이상 부부(중교 불문), 성직자, 수도자
 • 신청·문의 : 010-9746-0179, 010-3637-9746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또 하나의 소통 성, 사랑 그리고 생명(중1~고2)
 • 때 : 10.20(주일) 13:00~16:0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중1~3학년, 고1~2학년
 • 참가비 : 1만원/1인
 • 주제 : 우리들의 '성' 이야기
 • 신청 : <http://hapum7179.godmall.com/>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청년 성시간
 • 때 : 9.25(수) 19:3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장례지도사교육원 신입생 모집
 • 기간 : 11.22(금) 17:00까지
 • 과정 : 교리신학원, 교리신학원 심화과정, 전례음악원, 전례꽃꽂이, 전례꽃꽂이 심화과정, 장례지도사교육원
 • 면접 : 11.23(토), 대면 또는 온라인 면접
 • 문의 : (044)861-7230 과정별 소개와 제출서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2025학년도 논산대건고등학교 예비신학생 특별전형 모집(5명)
 • 자격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가톨릭교회의 사제를 희망하는 자
 • 면담 : 10.12(토) 14:00, 본교 인원관 1층 정당
 • 방법 : 본교 사제단 면접(교리, 기도문, 성소 등) 및 교과성적
 • 서류 : 생활기록부Ⅱ, 예비 신학생 증명서, 본당 주임 신부 추천서
 • 접수 : 10.8(화)까지 우편 / 논산시 논산대로 119 논산대건고등학교 교목실
 • 성소국장 면담 필수, 미리 시간 약속
 • 문의 : 논산대건고등학교 입학홍보부 (041)735-1968, 대전교구 성소국 (044)270-3046~7

찬미반오소서 생태피정
 • 때 : 10.2(수) 10:00~3(목) 16:00 / 1박 2일
 • 내용 : 생태감수성을 깨우는 찬미반오소서 회칙 통독 피정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교육비 : 10만원(1인실 12만원)
 • 문의 : 010-8848-5690

아론밴드 20주년기념 찬양콘서트
 • 때 : 9.27(금) 19:00
 • 곳 : 대전성모초등학교 콘서트홀
 • 내용 : 아론밴드의 활동 20주년을 기념하는 찬양콘서트와 게스트 제이팸의 공연
 • 문의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10-8000-8235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대덕구 오정동)
 • 문의 : (042)622-7018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10.10(목)~22(화) 남프랑스 (13일) 550만원(대한항공)
 • 10.20(주일)~28(월) 그리스 섬(9일) 535만원(대한항공)
 • 11.1(금)~13(수) 유럽3대 성모발현지(13일) 510만원(대한항공)
 • 11.18(월)~21(목) 나가사키, 고토(4일) 160만원(대한항공)
 • 공동경비는 별도(1인 1일 10유로)
 • 맞춤형 순례 가능
 • 문의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분도여행사 (02)852-8525

대전가톨릭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무료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지원
 • 상담방법 : 내방, 전화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2036, 624-3288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9월 월례회 일일 연수
 • 때 : 9.30(월) 09:30~16:10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참가비 : 1인당 4만원
 • 입금 : 농협 352-1700-5295-03 예금주 정남숙 / 참석자 성함으로 입금 후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발송 요망 (010-9407-2544 회계 정남숙 쌤)

천주교대전교구합창단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홍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 단장 : 서옥경 가타리나

2024년 제14차 포스트 푸르실로
 • 때·곳 : 10.19(토)~20(주일), 정하상 교육회관
 • 모집 : 남녀 혼성 60명
 • 참가비 : 10만원 (1박 2일)
 • 자격 : 푸르실로 교육 수료자로 주임신부와 올프레야 간사의 추천을 받은자
 • 문의 : 올프레야 간사

대전교구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OB단원 모집
 • 창단 15주년 행사로 11.27(수) 정기 연주회에 참석 가능한 졸업생 친구들을 찾습니다.
 • 문의 : 010-7921-3610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어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대전 가톨릭 음악선교단 더위드 단원모집

- 파트 : 악기, 보컬 (남자 보컬)
- 자격 : 생활성가를 좋아하는 20~40세 천주교 신자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744-7482 (김현주 시몬)
- 참고 : 유튜브 thewith3340, 인스타 the_with2007

2024 신앙 체험 및 선교 수기 공모전

- 주제 : 주님 신앙의 은총과 사랑 체험, 코로나 팬데믹과 신앙생활의 이야기, 복음선교(새가족 찾기, 쉬는교우 찾기) 사례 등
- 공모기간 : 10.1(화)까지
- 응모방법 : 이메일(djclack@naver.com) 또는 우편접수(세종시 정책연구원 5로 12, 천주교 대전교구청 평신도복음화실)
- 문의 : (044)270-3075
- 천주교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전 가톨릭성서모임 성서그룹공부 연수

- 제102차 마태오 연수
 - 10.11(금)~13(주일) 09:30~15:30
- 제103차 창세기 연수
 - 10.26(토)~27(주일) 09:30~15:30
- 대상 : 각 그룹공부 이수한 사람
- 곳 : 가톨릭문화회관(온라인 동시 병행)
- 연수비 : 5만원
- 문의 : 010-4228-0470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43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 국가 : 캐나다, 필리핀
- 대상 :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 성인 및 대학 어학연수
- 문의 : 국제교류팀 (053)593-1273
- 화상영어 수업 접수 가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 www.holyfcac.or.kr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전화 : (02)2274-1843, 4 / www.cdcc.co.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3박4일
- 문의 : 010-3645-9028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 때 : (1차) 10.12(토) 14:00 (2차) 11.2(토) 14:00
- 대상 : 현재 초6, 중1
- 문의 : (054)338-0530
-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gyo6.net/sanjayeon>)를 참고

수도회 및 피정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 곳 : 성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무센터)
- 때 : 11.1~3, 11.15~17
- 대상 : 개인, 단체 (본당사무직원, 구반장 환영)
- 문의·접수 : 010-9670-9775, 010-2231-2074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시간 미사

- 때 : 매월 첫 목요일 오후 7:30
- 곳 : 수리치골 성모성지(수녀원 성당)
- 문의 : 010-2480-7630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 때 : 9.28(토) 14:00~29(주일) 14:00
- 참가비 : 2만원(청소년 무료)
- 강사 : 김완식 요셉, 김태광 신부
- 진행 :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 곳 : 초정성령회관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 모임

- 때 : 10.5(토) 14:00~6(주일) 13:00
- 곳 : 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 문의 : 010-8353-2323(문자 문의)

제3회 천주교 대전교구합창단 정기연주회

받으소서 주님

지휘 천경필 아우구스티노
피아노 이윤정 헬레나
자도신부 지도신부 천환석 베드로

2024 10.25(금) 19:30
원신흥동성당



전석 무료 공연 / 문의 010-9655-2295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때	내용	곳 / 문의
상설 미사	매주 화 14:00	치유미사	곳 : 새열센터 문의 : (042)824-6771
	매주 수 10:30	전구기도미사	
	매주 토 10:30	성모신심미사	
은혜의 밤	9.26(목) 19:00	말씀, 미사, 안수 등 강사 : 한태호 신부(황새바위순교성지)	곳 : 천안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천안아산지구 기도회	매주 금 13:30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58.6°C

총 모금 586,032,990원

[9.1~7 모금액] 11,279,667원
본당 9,986,867원 / 개인·기관·행사 1,292,800원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늘봄약국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	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통I.C 인건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울리오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26 발칸반도(메주교래) 395만원 12/2 동부유럽 4개국 385만원 12/9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50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산타 사비나 대성당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5세기, 산타사비나 대성당, 로마

고대 후기 세계에서는 노예에게 가해진 사형에 대한 기억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묘사하는 데는 어떤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묘사는 초대 교회 시대에 바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몇 세기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탁월한 성화상의 도상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갔다. 이 확증이 장엄한 나무 십자가(고대에는 색칠해진 것)에서 드러나거나 대성당들에 놓인 커다란 은박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5세기에 제작되어, 신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표현한 최초의 예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 십자가 처형의 형상이 다른 성서적 장면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의 아벤티노(Aventino) 언덕에 있는 산타 사비나 대성당(Basilica di Santa Sabina)의 고대 나무문에 새겨져 있다.

이 산타 사비나 대성당은 명의 성당이자 도미니코회의 모교회이다. 5세기에 지어진 대성당 중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성당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성당 입구의 나무문 또한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문에서 예수님은 두 도둑 사이에서 팔을 뻗고 눈을 뜨고 있지만, 둥근 후광이 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에서 둥근 원은 처음과 끝이 없어 신성과 신적인 영광을 표시한 것으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다. 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로 인정받고, 마침내 국교로 승격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 주위에 둥근 후광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야말로 왕중의 왕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혹시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 산타 사비나 대성당의 나무문에 새겨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5세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졌던 신앙이 16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도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기억해 보기를 바란다.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겸 솔위 교구역사관 관장

양업인쇄소
홈페이지 개설

양업인쇄소

성당에서 필요한 각종 양식, 봉투류
(미사예물봉투 및 대봉투, 소봉투 등)

성경필사용지+성경필사제본
(필사용지 A4, 8월 및 원하는 크기 제작가능)

소식지, 명함, 전단지, 스티커, 포스터

책자, 카탈로그, 리플릿, 현수막 등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 기관과 본당, 대전교구의 인쇄물을 담당해온 양업인쇄소에서는 모든 인쇄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제3차 사목 평의회



‘2024년 제3차 사목 평의회’가 9월 7일(토) 교구청 명례방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목 평의회에서는 개정될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최종 검토가 이루어졌고,

본당 사목활동보고서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과 안건 토의가 있었다.

교구장 주교는 이번 사목 평의회를 통해 “지난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이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구 설정 80주년을 향해 함께 걸어 나아가자.”고 전했다.

용전동본당, 직산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9월 8일(주일) 대전동부지구 용전동성당(주임 윤성균 신부)에서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미사와 미사 중 본당 교우 33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9월 8일(주일) 천안동부지구 직산성당(주임 신인수 신부)에서 본당 교우 58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창조시기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건 신부)는 9월 9일(월) 갈마동성당에서 총대리 주교 주례로 교구 사제 공동집전으로 ‘2024 창조시기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 갈마동성당(주임 김동규 신부)에 탄소중립인증현판 수여식이 진행됐다. 갈마동성당은 94.24kw의 햇빛발전소를 운영중일뿐만 아니라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생태적인 활동과 지역연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어 지난 5월27일에 대전교구 최초로 탄소중립인증증을 받아서 오늘 탄소중립 인증 현판을 받았다.

솔피성지 순교자 현양미사와 대전교구 역사관 축복식 및 개관식



솔피성지 순교자 현양미사와 대전교구 역사관 축복식 및 개관식이 9월 7일(토) 총대리 한정현 주교 주례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피성지에서 봉헌됐다.

기존 김대건 신부 기념관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대전교구 역사관은 그동안 축적된 대전교구 역사 자료(교구 설립 칙서, 교구 사제들의 유품 등)와 성 김대건 신부 관련 자료를 전시했다.

효광원 개원 40주년 기념미사



효광원(원장 김현 신부) 개원 40주년 기념미사가 9월 9일(월)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이날 미사 전 40주년 기념식수와 효광원 설립자인故 김영환 신부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대전교구 프라도사제회 유기서약 미사



대전교구 프라도사제회(교구책임자 남광근 신부) 유기서약 미사가 9월 9일(월) 교구청 경당에서 총대리 한정현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이날 문재상, 유영근 신부가 유기서약을 했으며, 현재 교구에서 활동 중인 회원은 총 32명으로 이 중 21명이 종신 또는 유기 서약을 했다.

당진본당 2024년 본당의 날



당진본당(주임 김경식 신부)은 9월 8일(주일) 본당의 날을 맞아 ‘2024 본당의 날’ 행사를 했다.

1부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공소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전 신자 합창이 있었고, 2부에 구역별 장기자랑이 있었다.